

여야 후보 중앙당 '고공지원' 속 표심잡기

■ 달궂지는 광주 서울 보선 무소속 후보들 민생행보 주력

오는 4월 29일 치러질 광주 서구를 국회 의원 보궐 선거전이 점차 열기를 띠고 있다.

예상 대진표가 굳어지는데 여야 후보들은 중앙당의 '고공 지원' 속에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다. 무소속 후보들도 저마다 정점을 내세우며 바닥 민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24일 당 공전에서 배제된 조준성 전 광주시장 사무처장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 전열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득표전에 돌입했다. 조 전 처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 공천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정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당선시켜 줄 것을 지역민들에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처장은 지난 2월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해오며 등 상당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 후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덧밭 사수'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울인' 분위기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서구를 선거구의 각 동을 나눠 맡는 등 저인망식으로 바닥 민심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영택 후보 측도 그동안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감이 상당했다는 점을 고려해 문재인 당 대표 취임 이후 당 개혁을 적극 홍보하며 '민심 돌리기'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에 연일 대립각을 세우며 바닥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자율방범대와 시장, 근로자 대기소, 환경미화원 대기소, 보건소 등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바닥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지도부 등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지지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새정치연합의 지역 패권주의, 기득권 폐해' 등을 지적하며 득표활동에 벌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도 중앙당의 지원 속에 득표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날 광주를 방문한 심상정 원내대표는 강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동석하는 등 강 후보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강 후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무소속 천정배 전 장관과의 후보 단일화는 없다'는 뜻을 밝혔고, 기자회견 후 광주공장, 5·18 기념재단 등을 방문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옛 통합진보당 후보들도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서부터 민주의 봄을 만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남일(서구울)·이상규(서울 관악울)·김미희(성남 중원)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착오적인 중북몰이에 맞서지 않고서는 정권교체도, 민주주의도, 민생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4일 서울 성북구 길음 8단지 내 생활지원센터 어르신 공동 작업장을 방문,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박상옥 청문회 개최 수용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서 일정 조율키로

민변 등 5개 단체인 자진사퇴 촉구 선언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받아들여기로 했다.

박완주 원내대표인은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 원내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8일 만이다.

박 원내대표인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자는 의견을 냈다"면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특위 위원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해명을 듣고 국민 의사를 수렴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기식 의원 등 일부 특위 위원과 원내대표단 일각에서 끝까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양당 원내대표의 주례회동에서 청문회 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로서 1차 수사 때 고문 경찰관 2명만 기소해 공명 3명의 존재를 고의로 축소·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부각하면서 낙마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팀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하지만, 최선을 다하고도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한 것이라면 검사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며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정의와 인권을 도외시한 채 불의에 눈감고 기득권을 편승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인사혁신처·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 추진

미래부·해수부 최종 입지는 추후 결정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등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4일 "정부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작년 11월 새롭게 출범한 만큼 중앙행정기관 업무 효율성, 지방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두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같은 날 박 대통령은 24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 같은 논의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주말 부산에서 열리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와 4월 세계물포럼, 5월 세계교육포럼, 7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10월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국내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를 언급한 뒤, 안전 점검과 문화관광 프로그램 준비, ICT 기술 경험 기회 제공 등을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우 행복도시법 등 별도의 법정 작업 없이 정부 고시만으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두 기관의 이전 작업은 예상 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해양수산부의 최종 입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종시장을 포함한 충청지역 주요 인사들은 미래부의 세종시 조기 이전과 해수부의 세종시 전류를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이 충청지역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의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이번 추가이전 논의에서도 제외돼 관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공무원연금·노동 개혁안 기한내 마련돼야"

수석비서관 회의서 거듭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공무원연금과 노동부분 개혁과 관련, "국민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까지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염원대로 약속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급주 말인 3월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안 마련 기한도 이달 말까지"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일 앞둔 지난 23일 양측의 개혁 방향을 둘러싼 삼바싸움을 계속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내놓은 재정추계 모형을 검증했으나, 애초 공단 측 모형에 문제를 제기했던 분과위원·참고인들은 수급자 및 총재정부담 등의 추계치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다.

이 모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올해 108만 8400명에서 2045년 118만 8872명으로 30년 만에 10만472명(9.2%) 증가한다. 이들은 현행 7%의 기여율에 맞춰 재직 기간 급여의 일정액을 연금 기금에 붓는다. 같

은 기간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0만 4434명에서 100만 750명으로 59만 6316명(147.4%) 늘어난다. 돈을 내는 공무원 재직자의 증가율에 견줘 돈을 받는 수급자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의 부양률(수급자/재직자)은 올해 37%에서 2045년 84%로 급등하고, 재직자의 기여금만으로 수급액을 맞추지 못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전율은 이 기간 6%에서 28%로 4.7배가 된다.

새누리당은 합의안 도출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28일 예정대로 기구 활동을 종료하고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임법권을 가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긴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새정치민주

연합은 이에 맞서 새누리당 방식의 구조개혁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연금 구실을 제대로 못 하는 '용돈'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처럼 갈등이 깊어지자 박 대통령은 24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 같은 논의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주말 부산에서 열리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와 4월 세계물포럼, 5월 세계교육포럼, 7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10월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국내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를 언급한 뒤, 안전 점검과 문화관광 프로그램 준비, ICT 기술 경험 기회 제공 등을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기발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